

e-KIET 산업경제정보

제 603 호

[2014-28]

2014.11.27

2015년 주요 산업 전망

요약

2015년 12대 주력산업은 미국 등 선진권 중심의 회복세, 부품수요 증대 등에 힘입어 수출은 금년(3.2%)보다 약간 높은 성장(3.4%), 생산과 내수는 금년대비 증가세 둔화 예상

내년 수출도 IT제조업(4.5%)이 음식료·정유를 포함한 비IT제조업(2.3%)보다 높은 성장세와 약간의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전망

- 수출규모와 비중이 높은 조선과 반도체가 7% 내외의 수출호조세를 보이며 주력산업 전반의 수출확대에 기여
- 수출의 경우, 큰 폭은 아니지만 정유 외에 모든 업종이 증가하고, 특히 디스플레이가 그동안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플러스 증가로 전환

생산은 소폭의 수출증가 및 내수둔화, 주요 업종(IT제조업, 자동차, 섬유 등)의 해외생산 확대에 기인하여 전체적으로 낮은 성장

2015년에는 엔저 및 원화강세 여부, 주요 업종에서의 한·중 간 경쟁확대, 해외 생산 확대 지속, 한·중 FTA 발효 등이 변수로 작용 예상

규모가 작은 일부 후발업종(중전기계, 플라스틱제품, 이차전지 등)은 최근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기존 12대 주력산업의 수출비중 하락세를 보완

한편, 엔저 지속 시, 한·일 간 경쟁강도가 큰 정유의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고, 자동차, 섬유, 가전, 조선, 음식료 등도 일정 수준 영향을 받을 전망

2015년 한·중 주력산업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면서 철강, 반도체,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주력업종의 대중 수출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전망

1. 2015년 산업 전망 종합과 특징

수출은 금년과 비슷한 3%대 성장, 내수·생산은 증가세 둔화

12대 주력산업은 미국 등 선진권 중심의 회복세, 부품수요 증대 등에 힘입어 수출은 금년(3.2%)보다 약간 높은 성장(3.4%), 생산과 내수도 금년대비 소폭 증가 전망

- 엔저 및 원화강세 여부, 주요 업종에서의 한·중 간 경쟁확대, 해외생산 확대 지속, 한·중 FTA 발효 등은 변수로 작용 예상

2015년 수출도 IT제조업(4.5%)이 음식료·정유를 포함한 비IT제조업(2.3%)보다 높은 성장세와 약간의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전망

수출규모와 비중이 높은 조선과 반도체가 7% 내외의 수출호조세를 보이며 주력산업 전반의 수출확대에 기여

- 조선 수출은 연기되었던 고가 해양플랜트의 추가 인도, 2013년 선가 상승이 반영된 수주물량의 실적화 등으로 증가
- 반도체는 PC와 스마트폰시장 포화에도 서버시장 확대, 웨어러블기기, SSD, 자동차 등 신규 응용분야 수요확대가 긍정적 요인

수출의 경우 정유 외에 모든 업종이 증가하고, 마이너스 성장(가전, 디스플레이)한 업종이 플러스로 전환, 특히 디스플레이가 그동안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증가세로 전환

- 디스플레이는 수급이 회복사이클로 진입하는 한편, 패널가격 안정화, TV용 패널사이즈 증가, UHD 및 OLED패널 수요가 증가할 전망

생산은 소폭의 수출증가 및 내수둔화, 주요 업종(IT제조업, 자동차, 섬유 등)의 해외생산 확대에 기인하여 전체적으로 낮은 성장

- 디스플레이 생산이 수출회복으로 3% 증가세로 전환되지만, 석유화학과 섬유가 감소하고 여타 업종들은 1~3% 소폭 증가

2015년 12대 산업전망 기상도의 특징

- 수출호조세(5% 이상 증가)가 지속되는 산업 : 조선, 반도체
- 수출이 2012년 이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내년 플러스 증가로 전환되는 산업 : 디스플레이
- 금년에 이어 유일하게 수출감소가 전망되는 산업 : 정유
- 해외생산 확대로 수출대체 유발이 예상되는 산업 : 반도체, 가전,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섬유, 음식료, 가전
- 12대 산업 생산은 내수둔화, 소폭의 수출증가로 금년보다 증가세 둔화

그림 1 | 2015년 산업전망 기상도

		수출	생산	내수	수입
기계 산업군	자동차	☺	☺	☺	☼
	조선	☼	☺	☺	☺
	일반기계	☺	☺	☺	☺
소재 산업군	철강	☺	☺	☺	☺
	석유화학	☺	☹	☹	☺
	정유	☹	☺	☺	☺
	섬유	☺	☹	☺	☼☼
IT 제조업군	가전	☺	☺	☺	☺
	정보통신기기	☺	☺	☺	☺
	디스플레이	☺	☺	☼	☼
	반도체	☼	☺	☺	☺
음식료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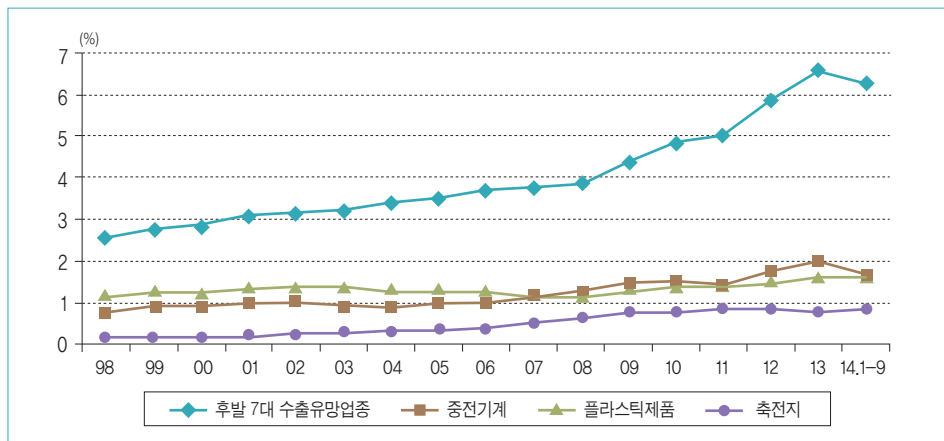
주 : 1) 전망 :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기준, -10% 이하 ☹☹, -5%~-10% ☹, -5~0% ☹, 0~5% ☺, 5~10% ☼, 10% 이상 ☼☼.
 2) 생산과 내수의 경우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정유는 석유제품, 섬유는 섬유사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3) 수출과 수입은 모든 업종에서 달러화 가격 기준.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부상하는 후발 유망산업

12대 주력산업의 수출증가율이 총수출 증가율을 하회하여, 총수출 대비 12대 업종의 비중은 77.9%(2014년 78.8%)로 낮아질 전망

- 반면 규모가 작은 일부 후발업종이 최근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존 12대 주력산업의 수출비중 하락세를 보완

그림 2 | 후발 수출호조업종의 총수출 대비 비중 변화



후발 7대 수출호조업종*의 총수출 대비 비중은 2010년 4.9%에서 2013년 6.6%로 상승 하면서 12대 주력산업의 수출비중 하락과 대비

※ 7대 수출호조업종 : 중전기계, 플라스틱제품, 축전지(이차전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경보신호기 부품, 화장품, 의료용전자기기

- 7대 수출호조업종의 1998~2013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17.2%로 총수출의 10%를 크게 상회
- 2015년에는 이들 후발 업종들의 수출비중이 더 상승할 전망

엔저 지속 시, 정유, 자동차 등 주요 업종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

2015년에도 엔저가 지속될 경우, 한·일 간 경쟁강도가 큰 정유와 자동차 등이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전망

- 한·일 간 경쟁강도가 보통 이하인 섬유, 가전, 조선, 음식료도 일정 수준 기업 채산성 악화, 수출감소의 영향을 받을 전망

정유는 일본과 휘발유, 경유 및 항공유 등 고부가가치 품목에서 경합도가 높아, 엔저 지속 시 가격경쟁력 약화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

- 자동차는 엔저로 수익성이 높아진 일본 중소형차 업체의 공격적 마케팅(가격인하 등), 일본부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로 소폭 수출감소 우려
- 조선은 한·일 간 경합도가 낮아 영향이 거의 없었지만, 일본이 엔저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로 우리 주력선종 분야에도 진입하며 경쟁 확대

철강, 일반기계,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석유화학은 한·일 간 경합도가 낮거나 일본 대비 경쟁우위로 엔저에 따른 영향은 낮을 전망

한·중 간 경쟁강도 제고로 대중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 상존

2015년 한·중 주력산업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면서 철강, 반도체,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주력업종의 대중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

그림 3 | 2015년 엔저 지속 시, 국내 주력산업의 수출 영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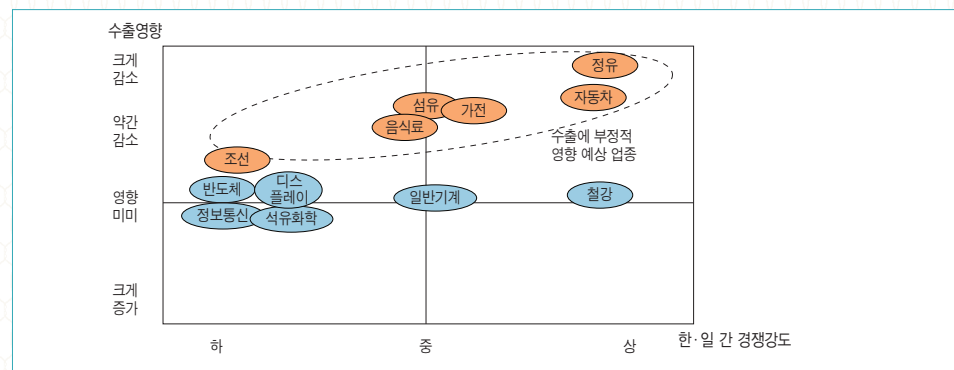


표 1 | 2015년 한·중 경쟁관계 변화에 따른 주력산업의 대중 수출 영향 전망

대중국 수출영향	업종	주요 변화요인	2015년 한·중 경쟁 강도
부정적 영향 매우 큼	-섬유 -가전	-중국 봉제, 소재경쟁력 급상승 -중국기업이 중국 내 점유율 확대	매우 심화
부정적 영향 다소 큼	-석유화학 -정유 -일반기계 -조선 -디스플레이 -정보통신기기	-중국 자급률 증가 추세 -중국의 과잉 자체설비 증설 등 -중국 내 생산품 우선구매 기조 -중국의 고부가 선종·기자재 역량 제고 -중국 생산능력 급속 확대 등 -중국 스마트폰분야 급성장 등	다소 심화
영향 미미	-철강	-중국 경쟁력 강화로 경쟁심화 -차별화된 고기능성제품 수출확대	다소 심화
	-반도체 -자동차	-중국과 제품차별화 및 공정분업 관계 -중국 대비 경쟁 우위	현수준 유지

특히 섬유와 가전은 한·중 간 경쟁강도가 매우 심화되면서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전망

- 석유화학, 일반기계, 조선, 정유, 음식료, 디스플레이, 정보통신기기도 한·중 간 경쟁강도가 높아지며 수출에 소폭 부정적 영향 우려

반면, 반도체와 자동차는 중국과 제품이 차별화되어 있거나 경쟁력이 우수어서 대중 수출영향은 낮을 전망

2. 2015년 12대 주력산업 전망

12대 산업 수출 : 조선, 반도체 등 모든 업종(정유 제외)이 증가하며 금년과 비슷한 성장

미국 등 세계경기 회복으로 정유 외에 모든 업종의 수출이 확대되면서 3.4% 증가하나, 정유는 공급과잉, 주요 수출처 수요 위축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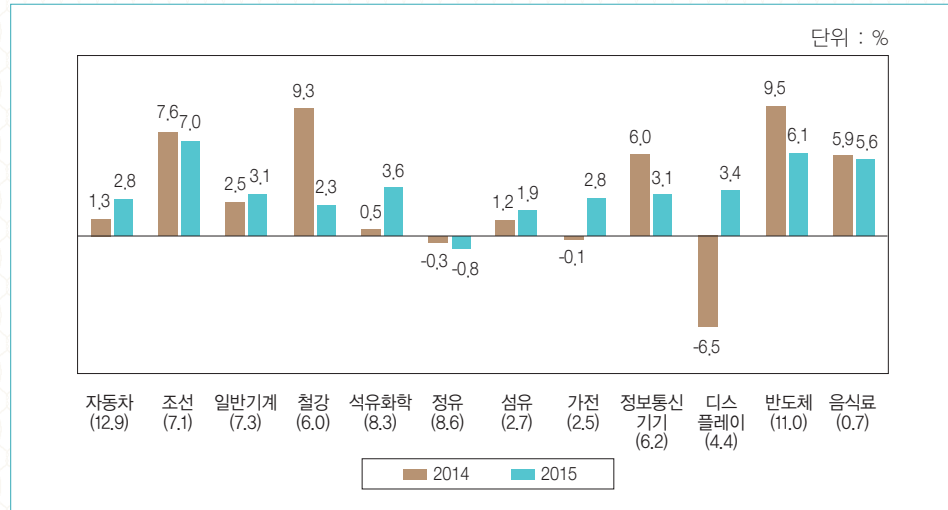
- 중국 등 신흥시장에서 한·중 간 경쟁심화, 신흥시장의 불안정한 성장, 엔저 등 대외여건과 한·중 FTA 등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

기계산업군은 금년대비 소폭 개선 : 조선이 선가상승 물량 인도로 7% 증가하고, 일반기계와 자동차 수출도 소폭 확대되며 4% 증가

- 자동차는 수출단가 상승과 부품증가에도 불구하고, 엔저, 신흥국 수요부진으로 2.8% 낮은 증가, 일반기계는 선진권 경기회복, 환경이슈 관련 공조기 및 오염제거용제품 수요확대로 3.1% 증가

소재산업군은 금년보다 둔화 : 석유화학이 선진국 경기회복으로 인한 수요증가로 3.6% 증가하나, 철강과 섬유의 낮은 성장, 정유의 감소로 전체로는 1.6% 증가에 머물 전망

그림 4 | 2015년 주요 산업별 수출증가율 전망



주 : 달러표시 가격 기준, () 안은 2015년 총수출 대비 점유율.

표 2 | 2015년 12대 주력산업의 수출전망의 주요 요인

전년대비 특징	업종	증가율(%)		2015년 수출증감 주요 요인
		2014	2015	
호조 (5% 이상)	조선	7.6	7.0	-금년 일부 연기된 고가 해양플랜트 인도 -2013년 선가 상승된 수주물량의 본격 인도
	반도체	9.5	6.1	-D램가격 하락, PC용 수요정체, 해외생산 확대 -서버시장, 웨어러블기기, SSD 등 신규수요 증가
	음식료	5.9	5.6	-미국, EU, 아세안 등 FTA의 긍정적 효과 -중국 등 중화권 내 한류 효과
개선	디스플레이	-6.5	3.4	-수급회복 : 패널가 안정, UHD패널 수요 증가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OLED와 TV수요 확대
	가전	-0.1	2.8	-신중국 디지털방송 전환, TV 수요 증대 -중국과 경쟁심화, 엔저는 부정적 요인
호전	석유화학	0.5	3.6	-미국 등 선진국 경기 회복 -EU경기 둔화 가능성, 엔저는 변수
	일반기계	2.5	3.1	-선진국 경기회복, 중국 내 환경이슈로 공조기, 오염제거용 제품 수요 증가
	자동차	1.3	2.8	-수출단가 상승, 르노삼성 OEM생산 본격화 -부품수요 확대, 신중국수요 부진, 엔저는 변수
	석유	1.2	1.9	-미국, EU경기 회복 및 FTA 효과 -중국 수요위축으로 대중 수출 부진
둔화	철강	9.3	2.3	-신중국 경기회복으로 해외공장 철강수요 확대 -중국수요 부진, 한·중·일 경쟁 심화
	정보통신 기기	6.0	3.1	-스마트폰, SSD, 해외거점의 부품수요 지속 -신흥시장 내 한·중 경쟁확대, 수출단가 하락
부진	정유	-0.3	-0.8	-공급과잉, 미국 셰일가스 개발로 인한 석유제품 수출 확대, 중국·인도네시아 수요 감소

주 : 개선은 증가세 전환, 호전은 증가세 확대, 둔화는 증가율 2%p 이상 감소 기준.

- 철강은 중국 수요둔화, 한·중·일 경쟁심화로 2.3% 소폭 증가, 섬유는 선진국 및 동남아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대중 수출부진으로 1.9% 증가에 머무를 전망
- 정유는 글로벌 공급과잉,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미국의 석유제품 수출 확대, 주요 수출처인 중국, 인도네시아 수요둔화로 감소 전망

IT제조업군은 금년과 비슷한 증가 :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는 성장세가 둔화되나, 디스플레이, 가전의 수출증가세 전환으로 4.5% 증가

- 디스플레이는 패널가 안정화, UHD패널 및 TV수요 호조로 3.4% 증가세 전환, 가전도 TV 및 조명기기 수요확대로 2.8% 증가 전환
- 정보통신기기는 SSD, 스마트폰 및 부품 수출확대에도 수출단가 하락, 중국과 경쟁심화로 3.1% 낮은 증가, 반도체는 서버시장 확대, 웨어러블기기, 사물인터넷 등 신규수요 확대로 6.1% 증가

12대 주력산업의 수출증가율이 총수출 증가율을 하회하여, 총수출 대비 12대 업종의 비중은 77.9%(2014년 78.8%)로 낮아질 전망

12대 산업 생산 : 석유화학과 섬유 감소, 여타 업종은 1~3% 증가

12대 주력산업의 생산은 낮은 수출신장세, IT제조업, 자동차 등의 해외생산 확대에 기인하여 전반적으로 부진한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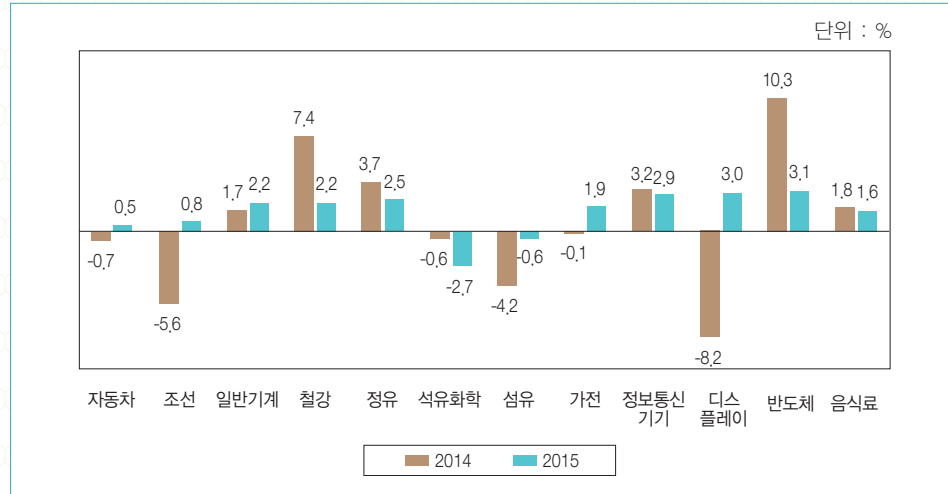
IT제조업군은 기대보다 낮은 수출성장세, 스마트폰에 이어 디스플레이, 반도체의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3% 증가에 그칠 전망

- 디스플레이가 수출회복으로 3% 증가세 전환, 가전도 내수·수출 회복으로 증가세로 전환되나 해외생산 확대로 1.9% 소폭 증가
- 반도체(3.1%)와 정보통신기기(2.9%)는 D램·AP 증산, 휴대폰부품 수요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세 둔화 및 해외생산 확대의 영향으로 증가세 둔화

비IT제조업군은 석유화학(-2.7%)과 섬유(-0.6%)가 감소하고 자동차(0.5%)와 조선(0.8%)이 증가세로 전환되나 소폭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낮은 성장세 전망

- (생산 감소) 석유화학은 수출증가에도 다운스트림 내수부진, 제품단가 하락으로, 섬유도 내수·수출의 저성장, 고가품 수입확대로 감소
 - (소폭 증가세 전환) 조선은 2013년 수주물량 인도로 건조량이 증가하나 해운시황 부진으로, 자동차는 생산여건 개선에도 수입차 수요와 해외생산 확대로 각각 미미한 증가
 - (낮은 성장) 일반기계는 내수·수출 회복, 에너지·친환경관련 기계류 수요확대로, 철강은 건설·조선경기 개선, 수출확대로 각각 2.2% 증가
- * 음식료는 건강식, 유기식품 등 프리미엄식품 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소비량 감소 추세가 이어지며 1.6% 소폭 증가

그림 5 | 2015년 주요 산업별 생산증가율 전망



주 :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정유는 석유제품, 섬유는 섬유사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 정유는 국제유가 하락과 국내재고 증가요인이 있으나, 고부가 수출제품 확대, 정유사의 설비가동률 유지 등으로 2.5% 증가

12대 산업 내수 : 석유화학 외에 모든 업종 증가하나 금년대비 둔화

주력산업 내수는 상대적으로 IT제조업이 주도하며 소폭 증가하나, 내수비중(94%)이 높은 음식료를 비롯해 철강, 일반기계, 자동차, 가전 등이 1~2% 증가에 그치면서 금년대비 증가세는 둔화

- 석유화학은 원료가격 하향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다운스트림 수요 부진이 지속되며 12대 산업 중 유일하게 3.3% 감소 전망

(내수중심 산업) 음식료는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필수재로서 안정적 소비심리 기조가 유지되며 1.7% 증가 전망

- 철강은 공급과잉 등에도 건설·기계산업 경기개선으로 1.5% 증가, 일반기계는 공공 부문 기계류 수주 영향으로 2.7%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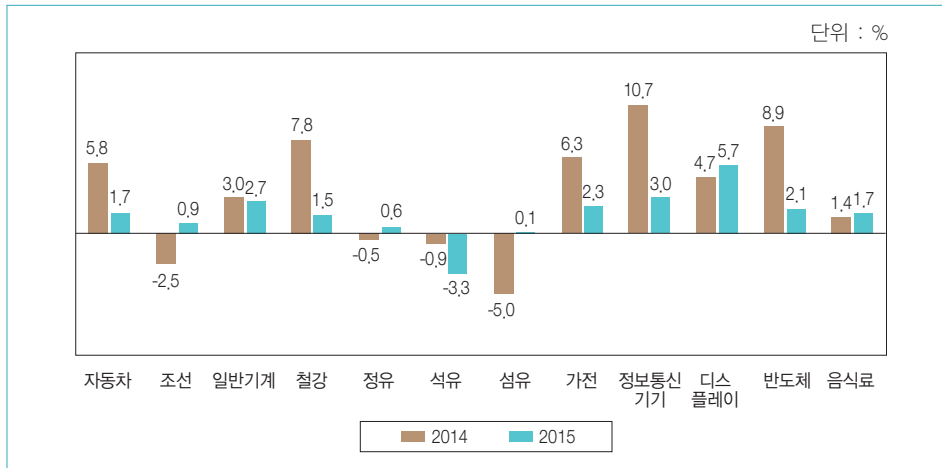
(수출·내수 병행) 가전은 보급형 UHD TV와 저전자파 온수매트 등 혁신제품 수요확대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소비심리 둔화로 2.3% 증가에 머무를 전망

- 자동차(1.7%)는 교체수요와 수입차 수요가 증가하나 시장포화, 차량가격 상승으로, 섬유(0.1%)는 소비회복으로 증가세 전환되나 가계부채 부담요인으로 낮은 성장

(수출중심 산업) 조선은 가스운반선, 해양플랜트 등이 감소하지만 초대형 컨테이너선, LNG선 등의 발주·수주량 증가로 0.9% 소폭 증가

- 정보통신기기는 시장포화에도 광대역 LTE-A 확산, 국산 및 외산 신규 스마트폰 및 윈도 10 교체수요로 3% 증가

그림 6 | 2015년 주요 산업별 내수증가율 전망



주 :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정유는 석유제품, 섬유는 섬유사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12대 산업 수입 : 내수·수출 확대로 3.9% 증가하나, 금년보다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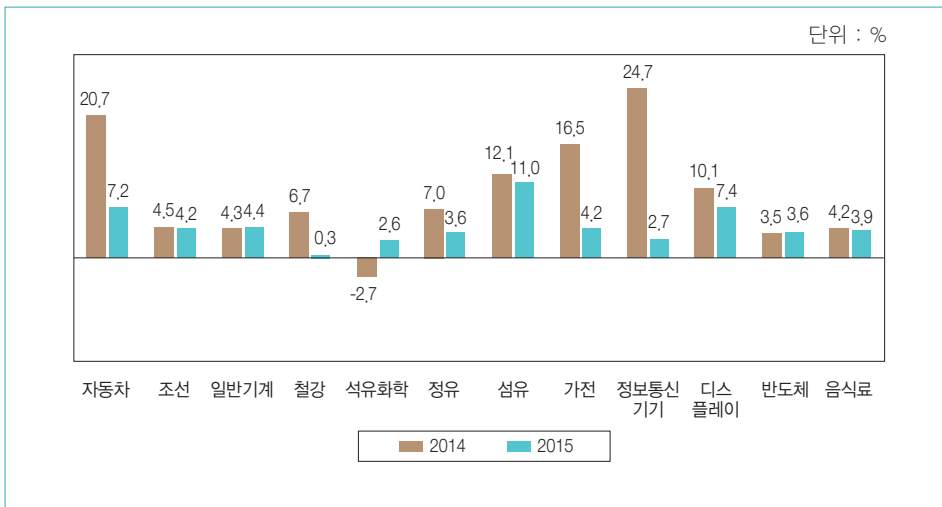
12대 주력산업 수입은 소폭의 내수확대, 정유 외에 모든 업종의 수출성장세 등으로 완제품, 부품소재 수입이 증가하며 3.4% 확대 전망

- 금년은 IT제조업이 10.7% 증가(비IT제조업 6.6%)하며 상대적으로 수입을 주도했지만, 2015년은 IT와 비IT가 각각 3.6%, 4.0% 증가 전망

기계산업군은 수입차, 기자재 수요증가, 일반기계(4.4%)가 FTA에 따른 관세인하 및 원화강세 등으로 증가하며 전년 대비 5.1% 증가

소재산업군은 민간소비 회복으로 섬유(11%)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국제 원료가격 하향 안정화 등으로 3.6% 증가 예상

그림 7 | 2015년 주요 산업별 수입증가율 전망



주 : 달러표시 가격 기준.

IT제조업군은 저가제품 수입수요 확대, 해외생산제품의 역수입, 엔저 및 원화강세 등의 영향으로 3.6% 증가

음식료는 음료·주류, 커피, 차 등 고급 가공식품 수요와 외국 프랜차이즈업체의 국내진출에 따른 식자재용 식품수요가 증가하면서 3.9% 증가 전망

표 3 | 2015년 주요 산업별 수출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업종	2013	2014			2015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동차	74,714	38,864	36,854	75,718	38,805	39,053	77,858
	4.0	4.0	-1.3	1.3	-0.2	6.0	2.8
조선	37,168	19,967	20,013	39,980	21,824	20,974	42,798
	-6.5	5.9	9.3	7.6	9.3	4.8	7.0
일반기계	42,020	22,059	20,993	43,052	22,423	21,978	44,401
	-3.6	0.7	4.3	2.5	1.7	4.7	3.1
철강	32,497	17,441	18,069	35,510	17,917	18,400	36,317
	-12.1	7.0	11.6	9.3	2.7	1.8	2.3
석유화학	48,376	23,997	24,613	48,610	24,987	25,369	50,356
	5.4	-1.4	2.4	0.5	4.1	3.1	3.6
정유	52,787	26,062	26,553	52,615	25,822	26,386	52,208
	-5.9	-2.1	1.4	-0.3	-0.9	-0.6	-0.8
섬유	15,958	8,012	8,132	16,144	8,141	8,315	16,456
	2.3	1.1	1.3	1.2	1.6	2.3	1.9
가전	14,885	7,480	7,385	14,865	7,350	7,930	15,280
	17.8	9.1	-8.1	-0.1	-1.7	7.4	2.8
정보통신기기	34,487	17,777	18,766	36,543	18,217	19,469	37,686
	13.7	8.5	3.7	6.0	2.5	3.7	3.1
디스플레이	27,387	12,761	12,851	25,612	13,218	13,274	26,492
	-9.1	-9.0	-3.9	-6.5	3.6	3.3	3.4
반도체	57,143	29,243	33,337	62,580	31,540	34,870	66,410
	13.3	10.6	8.6	9.5	7.9	4.6	6.1
음식료	3,936	2,029	2,140	4,169	2,109	2,292	4,401
	0.7	4.2	7.6	5.9	3.9	7.1	5.6
12대 산업 합계	441,358	225,692	229,706	455,398	232,353	238,310	470,663
	1.0	3.1	3.3	3.2	3.0	3.7	3.4

주 :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수치는 통관 기준.

표 4 | 2015년 주요 산업별 생산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업종	2013	2014			2015		
		상반기	하반기	연말	상반기	하반기	연말
자동차 (천대)	4,521	2,343	2,147	4,490	2,253	2,261	4,514
	-0.9	2.6	-4.0	-0.7	-3.8	5.3	0.5
조선 (만CGT)	1,250	604	576	1,180	611	579	1,190
	-8.1	-12.5	2.9	-5.6	1.2	0.5	0.8
일반기계 (10억원)	98,836	47,510	52,960	100,470	47,848	54,867	102,715
	-3.2	0.3	2.9	1.7	0.7	3.6	2.2
철강 (천톤)	69,147	37,044	37,209	74,253	37,905	37,959	75,864
	-4.0	8.3	6.5	7.4	2.3	2.0	2.2
석유화학 (천톤)	21,717	10,880	10,716	21,596	10,411	10,608	21,019
	1.4	0.7	-1.8	-0.6	-4.3	-1.0	-2.7
정유 (십만배럴)	10,020	4,908	5,486	10,394	5,119	5,536	10,655
	-90.3	-0.1	7.5	3.7	4.3	0.9	2.5
섬유 (천톤)	2,039	978	975	1,953	965	976	1,941
	-3.8	-4.5	-3.9	-4.2	-1.3	0.1	-0.6
가전 (10억원)	32,448	16,054	16,363	32,417	16,247	16,794	33,041
	-2.2	2.8	-2.7	-0.1	1.2	2.6	1.9
정보통신기기 (10억원)	67,493	34,703	34,941	69,644	35,384	36,286	71,670
	5.4	6.0	0.5	3.2	2.0	3.8	2.9
디스플레이 (10억원)	36,614	16,492	17,114	33,606	17,095	17,531	34,626
	-6.3	-9.6	-6.9	-8.2	3.7	2.4	3.0
반도체 (10억원)	71,580	38,697	40,243	78,940	39,645	41,725	81,370
	16.5	14.8	9.1	10.3	2.4	3.7	3.1
음식료 (10억원)	75,469	37,629	39,164	76,793	38,169	39,887	78,056
	0.4	1.4	2.5	1.8	1.4	1.8	1.6

주 :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정유는 석유제품, 섬유는 섬유사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표 5 | 2015년 주요 산업별 내수 전망

단위 : %

업종	2013	2014			2015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천대)	1,545	813	821	1,634	826	836	1,662
	0.0	7.8	3.8	5.8	1.6	1.8	1.7
조선 (만CGT)	113	56.0	54	110	57.1	54	111
	-3.7	-3.5	-1.7	-2.5	2.0	-0.2	0.9
일반기계 (10억원)	86,128	40,356	48,314	88,670	40,817	50,248	91,065
	2.4	2.0	3.7	3.0	1.1	4.0	2.7
철강 (천톤)	51,762	28,311	27,465	55,776	28,650	27,942	56,592
	-4.3	10.4	5.2	7.8	1.2	1.7	1.5
석유화학 (천톤)	10,802	5,332	5,370	10,702	5,173	5,176	10,349
	1.8	-1.5	-0.4	-0.9	-3.0	-3.6	-3.3
정유 (십만배럴)	8,252	4,063	4,149	8,212	4,103	4,161	8,264
	-90.0	0.2	-1.2	-0.5	1.0	0.3	0.6
섬유 (천톤)	1,525	735	714	1,449	730	720	1,450
	-2.8	-5.2	-4.8	-5.0	-0.7	0.8	0.1
가전 (10억원)	21,449	11,208	11,591	22,799	11,675	11,659	23,334
	-11.2	5.5	7.1	6.3	4.2	0.6	2.3
정보통신기기 (10억원)	46,941	26,486	25,498	51,984	26,992	26,562	53,554
	-0.1	16.1	5.7	10.7	1.9	4.2	3.0
디스플레이 (10억원)	9,955	4,849	5,578	10,427	5,328	5,689	11,017
	7.8	9.8	0.7	4.7	9.9	2.0	5.7
반도체 (10억원)	46,916	25,122	25,955	51,077	25,740	26,420	52,160
	13.6	8.4	9.3	8.9	2.5	1.8	2.1
음식료 (10억원)	83,407	41,360	43,229	84,589	42,003	44,008	86,011
	0.1	0.5	2.7	1.4	1.6	1.8	1.7

주 :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정유는 석유제품, 섬유는 섬유사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표 6 | 2015년 주요 산업별 수입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업종	2013	2014			2015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동차	11,222	6,517	7,027	13,544	7,088	7,431	14,519
	10.5	28.2	14.5	20.7	8.8	5.7	7.2
조선	3,638	1,775	2,027	3,802	1,926	2,036	3,962
	-18.6	-15.1	31.0	4.5	8.5	0.4	4.2
일반기계	30,415	15,193	16,535	31,728	15,611	17,502	33,113
	10.3	3.0	5.6	4.3	2.8	5.8	4.4
철강	27,994	15,223	14,639	29,862	15,215	14,728	29,943
	-9.2	7.4	5.9	6.7	-0.1	0.6	0.3
석유화학	17,015	8,087	8,476	16,563	8,638	8,349	16,987
	6.7	-8.1	3.2	-2.7	6.8	-1.5	2.6
정유	29,539	15,904	15,692	31,596	16,563	16,178	32,741
	10.2	6.1	7.8	7.0	4.1	3.1	3.6
섬유	13,520	6,381	8,775	15,156	6,965	9,854	16,819
	12.8	8.4	14.9	12.1	9.2	12.3	11.0
가전	4,832	2,861	2,770	5,631	2,920	2,950	5,870
	4.3	23.2	10.4	16.5	2.1	6.5	4.2
정보통신기기	15,718	9,944	9,651	19,595	10,086	10,046	20,132
	3.7	34.1	16.2	24.7	1.4	4.1	2.7
디스플레이	3,047	1,662	1,694	3,356	1,816	1,788	3,604
	-15.5	10.9	9.4	10.1	9.3	5.5	7.4
반도체	34,619	17,175	18,665	35,840	18,070	19,070	37,140
	7.4	2.0	4.9	3.5	5.2	2.2	3.6
음식료	11,185	5,586	6,071	11,657	5,824	6,289	12,113
	-0.8	-0.6	9.1	4.2	4.3	3.6	3.9
12대 합계	202,744	106,308	112,022	218,330	110,722	116,221	226,943
	4.1	6.9	8.5	7.7	4.2	3.7	3.9

주 :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수치는 통관 기준.

〈별첨 1〉 주력산업의 해외생산 확대와 수출에 미치는 영향

IT제조업군과 섬유, 음식료, 조선은 해외생산 비중이 높거나 확대 추세에 있어 국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

- 반면 자동차, 철강은 해외생산 확대로 수출감소가 우려되나, 해외생산지로 자동차 부품, 연강판·선재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영향은 미미할 전망
- 일반기계는 기존 진출한 중국 현지생산규모를 줄이는 상황으로서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낮을 것으로 예상

반도체는 중국 현지 메모리반도체 생산이 확대되면서 국내수출 증가에 일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해외생산 비중이 매우 높은 가전, 정보기기와 통신기기도 내년 베트남 등에서 태블릿 PC, 프리미엄가전 생산이 늘어나면서 수출을 제약할 전망
- 섬유는 생산기지의 탈중국 현상이 있지만, 베트남, 인도, 미얀마 등 동남아 해외생산이 확대 추세로 국내수출에 소폭 부정적 영향이 예상
- 음식료 : 2011년 이후 해외투자는 감소추세이지만, 중국, 미국 등 현지시장 진출 목적의 해외생산으로 국내수출을 일부 대체할 전망
- 조선 : 해외생산은 초기단계이나, 한진중공업의 경우처럼 해외 조선소가 국내보다 많은 물량을 확보하면서 그만큼 국내수출을 구축할 전망
- 디스플레이 : 2015년 중국 현지공장의 가동이 본격화되고 증설도 계획되고 있어 대중 수출에 부정적 영향 유발 전망

표 7 | 2015년 국내 주력산업의 해외생산 추이 및 수출 영향

수출 영향	업종	해외생산 지역		주요 요인
		기진출국	2015년 증설/ 추가 진출국	
큰폭 감소 유발	반도체	중국, 미국	중국, 미국	-중국 현지 메모리 투자확대로 수출계약 -미국투자는 웨이퍼가공처리 단계로 패키징은 한·중에서 수행 후 미국으로 재출하
소폭 감소 유발	가전	멕시코, 중국, 동유럽, 러시아, 아세안 등	베트남, 남아공 등	-환율 대응 위해 국내생산 해외로 이전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공장 신설 -해외공장의 프리미엄 제품 비중 확대
	정보통신 기기	중국, 베트남, 인도, 브라질	베트남, 인도	-베트남·인도에 휴대폰·태블릿 생산확대 -국내수출 대체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
	섬유	중국, 베트남	베트남	-대베트남 봉제의류생산이 섬유소재 확대 -해외생산 확대 및 역수입 증대로 국내생산 및 수출에 다소 부정적 영향
	디스플레이	중국,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중국	-중국에서의 생산 : 수입관세 회피, 현지 고객 관리 등을 위해 점차 확대 예상 -수출 영향 : 국내수출을 부분적 대체
	음식료	중국, 베트남, 미국, 러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해외생산 품목은 수출 감소 불가피 -식재료 조달 특성상 해외생산은 필수
	조선	필리핀, 루마니아, 중국	베트남 (3~4년 이후 추정)	-초기단계로 영향 작지만 한진 수빅조선소는 국내보다 1.9배 많은 물량 확보 -삼성중공업 베트남 투자를 계획 중
영향 미미	자동차	중국, 인도, 미국, 브라질, 러시아, 체코, 슬로바키아	멕시코 (2016년 예정)	-현지생산차종 제한적으로 수출영향 미미
	철강	중국, 인도, 미국,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베트남, 멕시코, 브라질	-코일센터·하공정(가공센터) 해외생산증가 -냉연강판, 도금강판과 같은 판재류 위주 -현지수요 위한 가공센터용 열연강판 및 선재 수출은 지속 확대 전망
	일반 기계	중국, 베트남	중국, 베트남	-해외생산이 점차 감소 중으로 수출 영향은 미미
소폭 증가 유발	자동차 부품	중국, 인도, 미국, 브라질 등	멕시코 (2016년 예정)	-완성차 현지생산으로 부품수출 유발
	휴대폰 부품	중국, 베트남 등	베트남, 인도	-스마트폰 현지생산 확대에 따른 부품수출 유발

주 : 석유화학과 정유는 해외생산이 없거나 매우 미미하여 제외.

신성장산업연구실 • 주력산업연구실
donhy@kiet.re.kr jkkim@kiet.re.kr
(02-3299-3032) (02-3299-3106)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